

家族特性이 3代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에 미치는 영향

—중소도시 거주 중년층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Family Characteristics on Housing Needs for the Three Generations Sharing House.

—In Case of the Middle Aged Living in Medium and Small Cities—

聖心女子大學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崔貞信

漢陽大學校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申京珠

Dept. of Home Management, Song Sim College for Women

Assistant Prof.: Jung-Shin Choi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Associate Prof.: Kyung-Joo Shin

I. 서론

II. 변수선정을 위한 3대동거주택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

III. 결과 및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ffer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the three generations sharing house plan, through find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haracteristics and the housing needs of the middle aged living in the middle and small cities.

The 102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is study, and data were analysed by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ir family characteristics influence housing needs for the three generations sharing house. Especially groups of female, neuclear family, family of higher S.E.S., less number of children. family living in the apartment houses and owner occupied house prefer more privacy between generations in the three generations sharing house.

I. 序論

1. 研究目的

우리나라는 老人福祉體制의 未備와 老人扶養에 대한 價値觀의 差異로 인하여 아직 다양한 노인주택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到來할 高齡化 社會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노인주택의 연구와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이 일환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家族體制를 고려한 3代同居住宅에 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기혼자녀가 노부모와의 同居時에 동거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기위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주택으로, 동거주택에서 住空間을 分離하는가, 折衷하는가 혹은 共用하는가 등의 住宅類型의 選擇은 노인과 자녀세대 雙方의 住意識에서 결정되므로 그 공간에 거주하는 居住者들의 意識에 따라서 住空間의 計劃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3대동거주택 연구의 대상자는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이 모두 채택되어야 하나, 특히 중년층 대상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現在의 중년층은 사실상 老人扶養과 子女養育을 동시에 부담하는 中間的 位置에 있는 世代로 중년층의 의견이 곧 이들의 부모인 老人世代의 住居決定에 有力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觀點에서 현재 實質적인 老人扶養者이며 意識적인 갈등을 겪는 세대인 中年層을 중심으로 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동거주택에 대한 住要求를 개인실의 분리, 世代間 住居分離 및 내·외부 환경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이 중 대표적인 요구를 選定하고, 이 요구와 가족특성과의 관계 및 각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변수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동거주택개발시에 중년층의 가족특성별로 다양한 평면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3대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¹⁾를 실시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조사는 1989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전국에서 10개 중소도시(안양, 부천, 강릉, 원주, 청주, 공주, 이리, 전주, 안동, 진주)를 선정하여 여기에 거주하는 30-40대의 중년층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문항 16개, 동거지향성에 관한 문항 7개, 가족관계만족도에 관한 문항 13개, 세대간 주거분리에 관한 문항 5개, 개인실의 분리에 관한 문항 4개, 내외부 환경에 관한 문항 27개의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신뢰도는 다중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본 결과, Cronbach의 알파값이 모두 0.70이상으로 그 신뢰도가 인정되었다.

2) 研究對象 및 資料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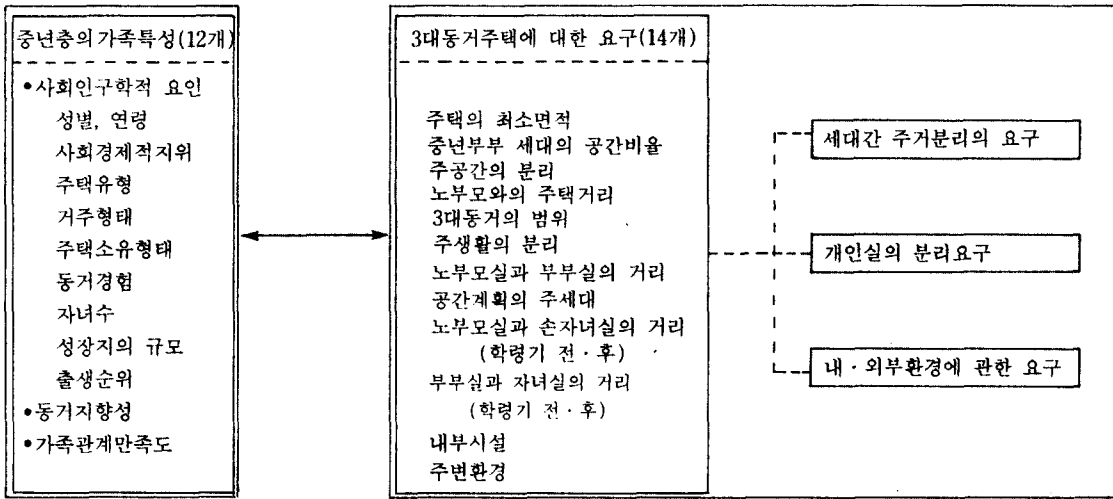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은 특별시, 직할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中年層의 기혼 남녀이다. 대상지역을 중소도시로 택한 것은 既存研究들이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中心으로 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동거주택의 시범건설이 서울에만 한정되어있어 앞으로는 중소도시에서의 3대동거주택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도시 대상연구와 함께 앞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대상은 중년층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年齡은 우리나라 成人男女의 平均結婚年齡代인 20대부터 老年期에 접어드는 60대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 중에서도 노부모를 실제로 扶養하는 중심적인 年齡代로 30-40대를 選定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溜保法에 의한 自己記錄方式을 택하여, 질문지를 해당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배부하여 그들의 학부형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1200부를 배부하여 1076부가 회수되었으며, 不實記載을 제외한 1029부(85.8%)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체 住要求와 가족특성과의 관계 및 대표적인 주요구의 선정에는 正

1) 신경주·최정신, 3대동거형 아파트의 입주후 실태분석, -상계지역의 경우-,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3호, 1989.9. P.89-102.



[그림 1-1] 연구의 모형

準相關分析(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住要求의 하위영역 분류에는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가족특성의 영향력의 크기규명에는 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모형을 예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II. 변수선정을 위한 3대 동거주택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

1. 世代間 住居分離의 要求

世代間 住居分離의 要求에는 住空間 分離 및 住生活 分離에 관한 요구를 함께 포함시켰다.

世代間 住空間의 分離는 家政學 分野의 住居領域과 建築學 分野에서 모두 다루고 있고, 이에 관련된 意識調査와 실태조사가 多數 있다(조원덕, 1984; 박하진, 1985; 박연수·신경주, 1986; 건설부·주택공사, 1987; 신경주, 1986, 1987, 1989; 이혜순, 1987; 문숙재·차성란, 1988; 신경주·최정신, 1989; 直井道子, 1984; 佐佐木ひろみ, 1984; 村上良知, 1984).

이 연구결과에서는 모두 共同生活空間은 共用을, 개인생활공간은 分離를, 생리위생공간은 부분적인 분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공간 분리의 要求는 개인생활공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다음이 생리위생공간이며, 공동생활공간에 대

한 요구는 매우 낮다. 위의 결과로는 3대동거가족의 대부분이 개인생활공간을 제외하고는 世代間에 주공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까지 침실 이외의 공간이 분리된 동거주택이 공급되지 않았고, 또 경제수준상 개인생활공간 이외의 공간 분리는 어려우므로 현 수준에서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침실 분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

世代間 住生活의 分離는 食事의 경우, 대부분 공동으로 하는 율이 높아서 老人專用부엌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도 食사를 공동으로 하는 율이 높다. 그외의 행위에서는 약간의 世代別 分離가 나타나 TV시청 등의 단란행위가 接客行爲보다 分離度가 높다. 즉, 住生活의 分離度는 食事행위, 接客행위, 단란행위의 順으로 높아져서, 接客行爲를 分離하는 世帯가 16%, 단란행위를 분리하는 世帯가 40%로 그 分離率에 있어서 단란행위는 분리해 가는 경향이 나 接客行爲의 분리는 아직도 낮다고 볼 수 있다(건설부·주택공사, 1987; 신경주·최정신, 1989). 주생활 분리 희망을 조사한 연구(박하진, 1985; 이혜순, 1987)에서도 食事공동 희망이 88%, 단란공동희망이 43%로 위의 실태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일본에서도 실태조사(直井道子, 1984; 佐佐木ひろみ, 1984; 村上良知, 1984) 결과, 세대간 취사공동이 90%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향이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주거분리에 관계된 변수를 언급한 것은 住空間 分離에 관한 것 뿐으로 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자의 경우에 세대간 주공간 분리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부부실의 프라이버시를 더 重視한다. 출생순위에서는 장남이 외의 자녀 경우에 주거분리의 요구가 더 커서 別居 指向의인 사람들의 住空間 分離 요구가 더 크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박연수·신경주, 1986; 신경주, 1986, 1987, 1989). 家族關係滿足度面에서는 동거가족 대상의 실태조사에서 家族融合도가 낮은 가족의 경우, 주공간의 共用과 주생활의 統合정도가 낮고(건설부·주택공사, 1987), 동거가족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가정내 역할관계가 一致하지 않을 때, 主觀的 住居過密水準이 높아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세대간 주공간분리의 요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차성란, 1988). 또한 동거경험에서는 동거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공간 분리요구가 높다고 하여 동거경험이 세대간 주공간 분리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순,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출생순위, 가족관계만족도와 동거경험을 세대간 주거분리 요구의 규명시에 변수로 포함시키기로 한다.

2. 內·外部 環境에 대한 要求

동거주택의 내부시설에 대한 요구를 다룬 것으로는 이혜순(1987), 신경주(1987, 1988, 1989), 直井道子(1984)의 연구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노인에게 필요하다고 조사된 물품 22종을 선택하여 제시한 후, 그 중 3대동거주택의 客室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을 우선순위로 3개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 居室에는 휴식용 의자, 전화, TV를, 老人室에는 수납장, 침구, TV, 전화를, 夫婦室에는 침대, 수납장, 전화를 선택하였다. 또한 동거주택에서 世代別로 따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생활용품으로는 TV의 요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화, 옷장의 순이다. 일본의 경우는 실제로 동거주택내에서의 住居設備의 共有度와 分離度를 출입구, 부엌, 욕조, 변기, TV, 전화의 6개 항목을 넣어서 조사한 결과, 각 설비의 共有率은 출입구 97%, 욕조 96%, 부엌 94%, 전화 89%, 변기 85%, TV 49%로 TV의 分離率이 가

장 높고 그외의 항목은 共有率이 매우 높다. 공유율이 높은 시설중 변기와 전화기는 단계적으로 분리해 가는 과정으로 유추된다.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주로 3대동거주택의 생활환경을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보거나 주변환경의 요구에 차이를 보인 변수를 밝히고 있으며(이혜순, 1987; 신경주, 1987; 김태현·서승희, 1988; Chatfield, 1977; Golant, 1984), 또한 동거주택의 면적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윤철준, 1986; 박연수·신경주, 1986; 건설부·주택공사, 1987; 정은옥, 1987)에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보다 약간 넓은 30평 내외에 적어도 3LDK—4LDK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가정학(이효재·지순·박민자, 1979; 지순 외 4인, 1985; 박연수·신경주, 1986)과 건축학(조원덕, 1984; 윤철준, 1986; 정은옥, 1987; 건설부·주택공사, 1987; 박태환, 1988) 분야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개략하면 3대동거주택의 희망유형은 단독주택의 희망이 공동주택의 희망보다 많다.

그러나 아파트 居住者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아파트 선호율이 더 높아서 3대동거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동거주택의 내·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에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동거주택의 내부시설에 대한 요구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로, 성별에 따른 내부시설의 요구에 차이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외부환경에 관한 요구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수입, 거주기간과 연령이다(이혜순·신경주, 1988; 신경주, 1987, 1989). 즉, 성별의 경우 여자는 주택내부환경과 여가환경에 대해서, 남자는 人的環境, 사회환경 및 주변환경에 대해서 그 요구가 더 높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이 적을수록 자신의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결과를 보이며,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노인들이 주거환경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결과를 보인다(Chatfield, 1977; Golant, 1984).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을 청년과 중년으로 구분하여 그 관심의 순위를 알아본 결과, 청년층과 중년층의 경우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져, 청년층은 주변환경이 가장 높고 다음이 주택내부환경, 여가환경의 순이며 중

년층은 주변환경이 가장 높고 다음이 사회환경, 주택내·외부환경의 순으로 낮아진다(박연수, 1986; 이혜순, 1987).

주택의 면적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거주주택유형별로 차이를 보여서 중년층 여자가 남자보다 더 넓은 면적을 원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공동 주택 거주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더 넓은 주택면적을 원하고 자녀의 공간에 관심이 많아 거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신경주, 1987, 1988,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에 연령, 성별, 수입, 거주주택 유형을 변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했던 변수 이외에 본 연구에 새로이 추가한 변수는 동거지향성, 가족관계만족도, 성장지의 규모, 자녀수이다. 동거지향성의 경우에는 거주형태에 따라 동거지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가 여러편 있었고(이효재·지순·박민자, 1979; 건설부·주택공사, 1987; 신경주·최정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f(%)		구분		f(%)
성별	남	507(49.7)		성장지의 가족구성	핵가족	594(57.8)
	여	514(50.3)			3대가족	434(42.2)
연령	30대	492(48.0)		현재의 가족구성	핵가족	683(66.4)
	40대	534(52.0)			3대가족	345(33.5)
교육수준		남편	부인	주된 성장지	경기도 (서울포함)	205(19.9)
	중졸이하	86(8.3)	200(19.5)		강원도	174(16.9)
	고졸	289(28.1)	429(41.7)		충청도	154(15.0)
	대졸	519(50.4)	372(36.2)		전라도	248(24.1)
	대학원이상	135(13.1)	028(18.4)		경상도	238(23.1)
월평균 수입	40만원이하	71(6.9)		기 타	10(1.0)	
	41-60만원	234(22.8)		성장지의 규모	대도시	189(18.4)
	61-80만원	252(24.5)			중, 소도시	503(48.9)
	81-100만원	282(27.4)			군, 읍, 면	337(32.7)
	101만원이상	189(18.4)			현거주지	경기도
			강원도			206(20.1)
			충청도	201(20.4)		
			전라도	210(20.4)		
			경상도	217(21.1)		
남편의 직업	단순노동	35(3.4)		현재의 주택종류	단독주택	600(58.4)
	기능·생산직	105(10.2)			연립주택	99(9.6)
	상업·서비스	665(64.7)			아파트	329(32.0)
	기술·사무직					
	행정관리직·전문직	190(18.5)				
	자본가·대기업주·고위관리	33(3.2)				
출생순위	장남	223(21.7)		주택의 소유형태	자 가	741(72.1)
	장녀	221(21.5)			전 세	231(22.5)
	외동	62(6.0)			월 세	040(3.9)
	그외의 딸	255(24.8)			기 타	016(1.6)
	그외의 아들	268(26.0)				
자녀수	없음	18(1.8)				
	1-2명	537(52.4)				
	3-4명	423(41.2)				
	5명이상	48(4.7)				

* 항목별 무응답이 제외되어 사례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신, 1989; 문숙재·차성란, 1989), 가족관계만족도의 경우에는 家族融合度, 姑婦關係에 따라 동거주택의 住要求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건설부·주택공사, 1987; 신경주·최정신, 1989; 문숙재·차성란, 1989)가 있어서 본연구에서는 변수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성장지의 규모는 타연구에서는 성장지를 변수로 다루었으나 본 연구의 성격상 성장지 자체보다는 성장지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또한 자녀수는 타연구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녀수의 차이가 주요구에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어 이도 역시 추가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본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적인 특성은 표 3-1과 같다.

성별과 연령 및 各道別 거주자의 분포는 意圖的인 票集에 의해 거의 같은 비율이다. 가족구성은 3대가족이 33.5%로 우리나라 평균인 14.2%(경제기획원, 1985)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며, 가족수는 4-5인의 경우가 가장 많아 (평균가족수 4.9명) 우리나라 평균 가족수 4.1명(경제기획원, 1989)보다 약간 많다. 자녀수는 1-2명이 가장 많아 우리나라 평균 자녀수 2.2명(경제기획원 1989)과 거의 비슷하다. 家長의 직업은 상업·서비스·기술·사무직 등이 가장 많고, 교육수준은 남편, 부인 모두 대졸이상이 35%이상으로 비교적 고학력 집단이다. 월평균 수입²⁾은 우리나라 평균 수입수준을 기준으로 그 이하와 이상이 비슷한 분포이며, 주택 소유율³⁾이 72%로, 종합적인 생활수준은 중하, 중, 중상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住要求 中 中年層 家族의 代表的인 要求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14개의 변수) 중 대표적

- 2) 우리나라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517,778원이다(한국통계월보 1989, 경제기획원).
- 3) 우리나라 전국주택보급율은 69.7%이다(한국통계연감 1988, 경제기획원).

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독립변수집단과 종속변수집단 간에 상호관련성의 존재여부 및 이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본다. 中年層의 家族特性和 3代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사이에 상호관련성의 존재여부는 正準相關分析을 통하여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兩 變數集團의 변수의 數가 각각 12개와 14개이므로 12쌍의 정준변량이 구해진다. 여기에서 각 正準相關係數를 살펴보면(표3-2), 첫번째 정준상관계수 $e^* 1=0.565$, 두번째 정준상관계수 $e^* 2=0.434$, 세번째 정준상관계수 $e^* 3=0.286$...와 같다. 첫번째 정준상관계수 $e^* 1$ 에 對應하는 두 변수 집단의 정준변량이 각각 V1(종속변수집단의 정준변량)과 W1(독립변수집단의 정준변량)이고 마찬가지로 $e^* 2$ 에 對應하는 정준변량이 V2와 W2이다. 이때, 첫번째 정준변량 쌍 "V1, W1"은 모든 정준변량 중 두 정준변량간의 상관계수는 0.565이다. 그리고 "V2, W2"는 "첫번째 정준변량 쌍"과 "두번째 정준변량 쌍"을 제외한 나머지 정준변량 중 그 연관성이 가장 큰 값 0.286을 갖는 정준변량의 쌍이다.

위 12쌍의 정준변량의 정준상관계수를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한 결과, $P<0.001$ 에서 $e^* 1$, $e^* 2$, $e^* 3$ 의 3쌍만이 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변수 집단인 "中年層의 家族特性(독립변수 집단)"과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종속변수 집단)"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0.236 내지 0.565)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층의 가족특성에 따라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상관정도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 정준변량들에 의해 설명된 分散說明力을 살펴본다. 정준상관계수 $e^* k$ 는 자료에 의한 정보를 전달해준다 반드시 자료의 변동(Variability)을 설명해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결과 종속변수 집단의 12개 정준변량 중 첫번째 정준변량 V1(0.053)보다 두번째 정준변량 V2(0.491)가 분산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두번째 정준변량이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에 대한 정보를 첫번째 정준변량보다 더 많이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종속변수 집단의 첫번째 정준변량은 독립변수 집단의 정준변량과 연관성이 가장 큰 정준변량이고, 두번째 정준변량은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의 分散에 대한 說

明力이 가장 큰 정준변량이다. 따라서 두번째 정준변량(V2)이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 즉, 개인실의 분리, 세대간 주거분리 및 내·외부환경에 대한 요구의 49%를 설명하여 그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각 정준상관계수 $e \cdot k(k=1, 2, \dots, 12)$ 에 對應된 “3代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와 “中年層의 家族特性”의 正準係數로 정준변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첫번째쌍〉

$$\begin{aligned} \text{종속변수 집단의 정준변량 } V1 &= 0.305DEP2 + 0.378- \\ & DEP3 + 0.138DEP4 - 0.082DEP5 + 0.510DEP6 - 0.021DEP7 \\ & + 0.084DEP8 + 0.255DEP9 - 0.040DEP10 + 0.137DEP11 \\ & + 0.162DEP12 - 0.016DEP13 + 0.013ZZ1 - 0.023ZZ2 \\ \text{독립변수 집단의 정준변량 } W1 &= 0.003SCHT - 0.215A- \\ & GE + 0.804SEX - 0.030ROB + 0.574TOF - 0.106ZA \\ & - 0.037ZB + 0.109ZC + 0.039TOA - 0.247STH + 0.203STO \\ & + 0.002NOK \end{aligned}$$

〈두번째쌍〉

$$\begin{aligned} \text{종속변수 집단의 정준변량 } V2 &= -0.279DEP2 - 0.541- \\ & DEP3 - 0.058DEP4 + 0.030DEP5 - 0.027DEP6 - 0.207DEP7 \\ & + 0.079DEP8 + 0.014DEP9 - 0.153DEP10 - 0.047DEP11 \\ & + 0.007DEP12 - 0.038DEP13 + 0.132ZZ1 + 0.037ZZ \\ & 2 \end{aligned}$$

4) 공식에 사용된 종속변수집단과 독립변수 집단의 부호는 아래와 같다.

※ 종속변수 집단

DEP.2: 주택의 최소 면적, DEP.3: 중년부부 세대의 공간비용, DEP.4: 住空間의 分離, DEP.5: 공간계획의 主世代, DEP.6: 노부모와의 주택거리, DEP.7: 3대동거의 범위, DEP.8: 主生活의 分離, DEP.9: 노부모실과 부부실의 거리, DEP.10: 노부모실과 학령기이전 손자녀실의 거리, DEP.11, 노부모실과 학령기이후 손자녀실의 거리, DEP.12: 부부실과 학령기이전 자녀실의 거리, DEP.13: 부부실과 학령기이후 자녀실의 거리, ZZ1: 내부시설, ZZ2: 주변환경.

※ 독립변수 집단

SCHT: 성장지의 규모, AGE: 연령, SEX: 성별, ROB: 출생순위, TOF: 거주형태, ZA: 동거지향성, ZB: 가족관계만족도, ZC: 사회경제적지위, TOA: 동거경험, STH: 주택유형, STO: 주택소유형태, NOK: 자녀수.

$$\begin{aligned} \text{독립변수 집단의 정준변량 } W2 &= -0.147SCHT - 0. \\ & 039AGE + 0.298SEX + 0.039ROB - 0.083TOF + 0.030ZA \\ & + 0.076ZB + 0.210ZC + 0.164TOA - 0.464STH + 0.246STO \\ & - 0.378NOK \end{aligned}$$

〈세번째쌍〉

$$\begin{aligned} \text{종속변수 집단의 정준변량 } V3 &= 1.478DEP2 + 1.124- \\ & DEP3 - 0.264DEP4 + 0.101DEP5 - 0.110DEP6 + 0.500DEP7 \\ & - 0.334DEP8 - 0.151DEP9 + 0.089DEP10 - 0.024DEP11 \\ & + 0.082DEP12 + 0.126DEP13 + 0.021ZZ1 - 0.030ZZ \\ & 2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독립변수 집단의 정준변량 } W3 &= 0.282SCHT + 0. \\ & 533AGE + 1.098SEX - 0.438ROB + 0.540TOF + 0.066ZA \\ & + 0.019ZB + 0.083ZC - 0.229TOA + 0.595STH + 0.582STO \\ & + 0.368NOK \end{aligned}$$

다음에는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 중 代表的인 要求를 파악하기 위하여 앞에서 그 유의성이 입증된 3쌍의 정준변량의 特性을 알아보기로 한다. 독립변수 집단과 종속변수 집단의 정준변량과 그를 구성하는 個別變數間의 상관관계는 표 3-3과 같다. 종속변수 집단인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의 정준변량 중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의 정준변량(V1, V2, V3)에 관해 살펴보면, 첫번째 정준변량은 “노부모와의 주택거리”(0.866) 및 “노부모실과 부부실의 거리”(0.526)와, 두번째 정준변량은 “내부시설”(0.890) 및 “주변환경”(0.645)과, 세번째 정준변량은 “동거주택의 최소면적”(0.704)과 각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 14개 하위항목중에서 이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要求는 “세대간 주거분리의 요구”인 노부모와의 주택거리, 노부모실과 부부실의 거리이며, 그 외에 “내·외부환경에 대한 요구”인 내부시설, 주변환경 및 동거주택의 최소면적 등의 5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준상관분석을 통하여 中年層의 家族特性과 同居住宅에 대한 要求⁴⁾ 14개 하위항목중에서 이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要求는 “세대간 주거분리의 요구”인 노부모와의 주택거리, 노부모실과 부부실의 거리이며, 그 외에 “내·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인 내부시설, 주변환경 및 동거주택의 최소 면적 등의 5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준상관분석을 통하여 中年層의 家族特性과 同居住宅에 대한 要求와의 연관성을 검토

〈표 3-2〉 正準相關分析 결과 얻어진 正準變量의 正準相關係數

정준변량	정준상관계수	표준오차	우도비	F	분산설명력(%)
1	0.565	0.021	0.422	5.0347*	0.0531
2	0.434	0.026	0.649	3.0713*	0.4913
3	0.286	0.029	0.800	1.8710*	0.0661
4	0.236	0.030	0.871	1.3955	0.0527
5	0.155	0.031	0.923	1.0055	0.0082
6	0.146	0.031	0.945	0.8920	0.0058
7	0.108	0.031	0.966	0.7249	0.0403
8	0.094	0.031	0.977	0.6585	0.0197
9	0.079	0.031	0.986	0.5910	0.0639
10	0.066	0.031	0.992	0.5249	0.0652
11	0.057	0.031	0.100	0.4436	0.0595
12	0.018	0.031	0.100	0.1102	0.0152

〈표 3-3〉 종속변수 집단의 特性變量

정준변량	특성변량	상관계수
V1	노부모와의 주택거리	0.866
	노부모실과 부부실의 거리	0.526
V2	내부시설	0.890
	주변환경	0.645
V3	주택의 최소면적	0.740

한 결과, 兩 변수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고, 정준변량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변량이 5개 나타났으므로 이를 同居住宅의 住要求 중 代表的인 要求로 볼 수 있다.

3. 住要求에 영향을 미치는 中年層의 家族特性

본 항목에서는 중년층의 가족특성이 3代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重回歸分析을 하였다.⁵⁾

5) 독립변수 중 명목변수(7개)는 Dummy Variables로 전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연속형변수는 점수가 많을수록 측정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Dummy : · 연령 : 1-40대, 0-30대 · 성별 : 1-여자, Variables 0-남자 · 출생범위 : 1-만자녀, 0-그외의 자녀 · 거주형태 : 1-핵가족, 0-3대가족 · 동거경험 : 1-있음, 0-없음 · 주택유형 : 1-단독

분석에 사용된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는 앞에서 정준상관분석을 통하여 대표적인 요구로 밝혀진 5개 항목(노부모와의 주택거리, 노부모실과 부부실의 거리, 동거주택의 최소면적, 내부시설, 주변환경)과 世代間 住居分離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으로 사료되는 개인실의 분리요구 4개 항목(손자녀의 연령별 노부모실과 손자녀실의 거리 2개 항목, 자녀의 연령별 부부실과 자녀실의 거리 2개 항목)을 추가하여 9개 항목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해 각 변수의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얻은 후, 이 점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Pearson의 단순상관분석에 의해 9개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Varimax회전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하여 고유치(Eigen Value)가 1.0이상인 주성분 3개를 구하였다(累積 설명력 54.2%) (표 3-4). 이를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여 각각 “개인실의 분리요구(요인1)”, “내·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요인2)”, “세대간 주거분리의 요구(요인3)”로 명명하였고, 이 3개의 요인은 연구자가 처음에 연구모형을 설정할 때 예상하였던 바와 일치하였다.

이 3개 요인의 각각의 설명변량은 개인실의 분리요구가 가장 크고(28.5%), 다음이 내, 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16.6%), 세대간 주거분리의 요구(11.1%)

주택, 0-공동주택 · 주택소유형태 : 1-自家, 0-임대

〈표 3-4〉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의 要因分析 결과

요인	포함된 문항	부하량	요인명	설명변량(%)
1	노부모실-손자녀실의 거리		개인실 분리의 요구	26.5
	학령기 이전	0.791		
	학령기 이후	0.719		
	부부실-자녀실의 거리			
	학령기 이전	0.691		
	학령기 이후	0.593		
2	내부시설	0.801	내외부 환경에 관한 요구	16.6
	주변환경	0.789		
	주택의 최소면적	0.467		
3	노부모실-부부실의 거리	0.740	세대간 주거분리의 요구	11.1
	노부모와의 주택거리	0.723		

〈표 3-5〉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의 回歸分析 결과

住要求	전체영역		개인실의 분리 (요인1)		내·외부환경에 관한 요구 (요인2)		세대간 주거분리의 요구 (요인3)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b)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b)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b)	회귀계수 (B)	표준화 회귀계수(b)
	家族特性							
성장지의 규모	-0.006	-0.003	0.055	0.039	0.010	0.007	-0.071	-0.050
성별	-0.827	-0.241*	0.227	0.115*	0.237	0.119*	0.363	0.182*
연령	-0.037	-0.011	0.042	0.021	0.078	0.039	-0.157	-0.079*
출생순위	-0.079	-0.022	-0.066	-0.033	-0.091	-0.046	0.078	0.039
거주형태	0.431	0.118*	0.171	0.081*	0.027	0.013	0.233	0.111*
동거지향성	-0.044	-0.120*	-0.017	-0.082*	0.019	0.090*	-0.045	-0.215*
가족관계만족도	0.008	0.035	-0.014	-0.098*	0.028	0.203*	-0.006	-0.045
사회경제적지위	0.162	0.218*	0.009	0.022	0.093	0.216*	0.060	0.138*
자녀수	-0.143	-0.093*	0.010	0.011	-0.073	-0.082*	-0.080	-0.089*
동거경험	0.091	0.026	0.027	0.014	0.041	0.020	0.023	0.012
주택유형	-0.300	-0.086*	0.021	0.011	-0.079	-0.039	-0.242	-0.120*
주택소유형태	0.265	0.070*	0.077	0.035	0.140	0.064*	0.048	-0.022
회귀상수	0.479		-0.213		0.187		0.506	
R	0.213		0.057		0.147		0.223	
Durbin Watson 계수	1.983		1.898		1.962		1.867	

* P<0.05

의 순이다.

이상의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요인점수로 중회귀분석하여 중년층의 가족특성이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에 미치는 영향을 표 3-5에 제시한다. 回歸式은 먼저, 3가지 요인 전체영역에 대해서 추정하고,⁹⁾ 다음

- 6) 동거주택 전체영역에 대한 회귀식의 추정은 요인점수를 이용하였으므로, 단순히 모든 영역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준 것임.

에 요인 1에서 3까지의 하위영역별 요구에 대하여 따로 추정하여 모두 4개의 회귀식을 얻었다.

요인 1에서 3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가족특성이 3대 동거주택 전체영역의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text{동거주택에 대한 住要求}) = 0.479 - 0.006\text{SCHT} + 0.827\text{SEX} + 0.037\text{AGE} - 0.079\text{ROB} + 0.431\text{TOF} - 0.044\text{ZA} + 0.008\text{ZB} + 0.162\text{ZC} - 0.143\text{NOK} + 0.091\text{TOA} - 0.300\text{STH}$$

+0.265STO

위 회귀식에 의하면, 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에 비교적 영향력이 큰 가족특성은 성별(SEX), 거주형태(TOF), 동거지향성(ZA), 사회경제적지위(ZC), 자녀수(NOK), 주택유형(STH), 주택소유형태(STO)의 7개 변수이다. 이를 설명하면 성별이 여자이고 거주형태는 핵가족으로 동거지향성이 낮고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으며 자녀수가 적은 가족 그리고 공동주택과 自家에 거주하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조건의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실의 분리, 세대간의 주거분리, 내, 외부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다. 이 설명력의 정도는 유의한 7개 변수 중, 성별($b=0.241$)이 가장 크고, 다음이 사회경제적지위($b=0.218$)와 동거지향성($b=-0.120$), 거주형태($b=0.118$), 자녀수($b=-0.093$), 주택유형($b=-0.086$), 주택소유형태($b=0.070$)의 순으로 적어지며, 7개의 변수가 동거주택에 대한 요구를 21.3%($R^2=0.213$) 설명한다.

이 외에 성장지의 규모(SCHT), 연령(AGE), 출생순위(ROB), 가족관계만족도(ZB), 동거경험(TOA)은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즉, 앞의 2항에서 중년층의 가족특성과 동거주택에 대한 主要要求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설명력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회귀식에서 얻어진 係數에 가족특성의 변수를 代入하여 곱해주면 그들이 원하는 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를 단계별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계수의 크기를 통하여 각 변수가 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7개의 변수는 모두 선행연구(박연수, 1986; 이혜순, 1987; 신경주, 1987, 1989)에서의 別居指向的인 성격을 가진 집단과 일치하므로 이들이 동거주택내에서의 개인실의 분리, 세대간 주거분리와 내·외부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요인분석에 의해 분류된 3요인별로 중년층의 가족특성이 각각의 下位要求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추정한다. 이 결과 각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 및 계수의 부호가 전체요구를 함께 본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이 밝혀져 이를 통하여 각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각기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중년층의 가족특성이 個人室의 分離要求(요인 1)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Y(\text{個人室의 分離要求}) = -0.213 + 0.055SCHT + 0.227SEX + 0.042AGE - 0.066ROB + 0.171TOF - 0.017ZA - 0.014ZB + 0.009ZC + 0.010NOK + 0.027TOA + 0.022STH + 0.077STO$$

個人室의 分離要求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SEX), 거주형태(TOF), 동거지향성(ZA), 가족관계만족도(ZB)의 4개 변수이다. 개인실의 분리요구가 높은 집단은 성별이 여자이고 거주형태는 핵가족이며 동거지향성과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은 가족의 경우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성격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실의 분리요구가 높다. 여기에서도 別居指向的인 성격의 집단이 分離要求가 높아서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그 설명력의 정도는 성별($b=0.115$)이 가장 크고, 다음이 가족관계만족도($b=-0.098$)이며 동거지향성($b=-0.082$), 거주형태($b=0.081$)의 順으로 적어져 이 4개의 변수들이 개인실의 분리요구의 5.7%($R^2=0.057$)를 설명한다.

다음에, 중년층의 가족특성이 내, 외부환경에 대한 요구(요인 2)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Y(\text{內·外部 環境에 대한 要求}) = 0.187 + 0.010SCHT + 0.237SEX + 0.078AGE - 0.091ROB + 0.027TOF + 0.019ZA + 0.028ZB + 0.093ZC - 0.073NOK + 0.041TOA - 0.079STH + 0.140STO$$

내·외부환경에 대한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SEX), 동거지향성(ZA), 가족관계만족도(ZB), 사회경제적지위(ZC), 자녀수(NOK), 주택소유형태(STO)의 6개 변수이다. 요구가 높은 집단은 성별이 여자이고 동거지향성, 가족관계만족도와 사회경제적지위가 높고 자녀수가 적으며 自家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조건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외부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다. 그 설명력의 정도는 사회경제적지위($b=0.216$)가 가장 크고, 다음이 가족관계만족도($b=0.203$)이고, 성별($b=0.119$), 동거지향성($b=0.090$), 자녀수($b=-0.082$), 주택소유형태($b=0.$

064)의 순으로 적어지며 이들 6개 변수가 내, 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를 14.7%(R²=0.147)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중년층의 가족특성이 세대間 住居分離의 要求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Y(\text{세대間 住居分離의 要求})=0.506-0.071\text{SCHT}+0.363\text{SEX}-0.157\text{AGE}+0.078\text{ROB}+0.233\text{TOF}-0.045\text{ZA}-0.006\text{ZB}+0.060\text{ZC}-0.080\text{NOK}+0.023\text{TOA}-0.242\text{STH}+0.048\text{STO}$$

세대間 住居分離의 要求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SEX), 연령(AGE), 거주형태(TOF), 동거지향성(ZB), 사회경제적지위(ZC), 주택유형(STH), 자녀수(NOK)의 7개 변수이다. 요구가 높은 집단은 성별이 여자이고 연령은 30대로 핵가족이며 동거지향성이 낮고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으며 자녀수가 적고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조건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대간 주거분리의 요구가 높은 경향이다. 그 설명력의 정도는 동거지향성(b=-0.215)이 가장 크고, 다음이 성별(b=0.182)이며 사회경제적지위(b=0.

138), 주택유형(b=-0.120), 거주형태(b=0.111), 자녀수(b=-0.089), 연령(b=-0.079)의 순으로 적어지며 이들 7개 변수들이 세대간 주거분리 요구의 22.3%를(R²=0.223) 설명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동거주택에 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년층의 가족특성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먼저, 전체영역에서 住要求가 높게 나타난 집단은 성별이 여자이고 거주형태는 핵가족으로 동거지향성이 낮고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으며 자녀수가 적고 공동주택과 自家에 거주하는 가족이다. 다음에, 하위영역에서 요구가 높게 나온 집단은 여자, 핵가족, 동거지향성과 가족관계만족도가 낮고,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으며 자녀수가 적은 가족으로 공동주택과 自家에 거주하는 가족이다. 여기에서 성별이 여자인 경우는 개인실의 분리, 내·외부 환경, 세대간 주거분리의 3가지 영역에서 모두 요구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나, 동거주택에 대한 주요요구에 영향력이 큰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핵가족은 개인실의 분리와 세대간 주거분리에서, 동거지향성이 낮은 가족은 개인실의 분리와 세대간 주거분리에서, 자녀수가 적

〈표 3-6〉 家族特性別 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

家族特性	住要求	전체영역	개인실의 분리	내·외부 환경	세대간 주거분리
	성별	남			
	여	*	*	*	*
연령	30대				*
	40대				
거주형태	핵가족	*	*		*
	동거가족				
동거 지향성	高			*	
	低	*	*		*
가족관계 만족도	高			*	
	低		*		
사회경제적 지위	高			*	*
	低	*			
자녀수	多				
	少	*		*	*
주택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			*
주택소유 형태	自家	*		*	
	賃貸				

* 요구도가 높은 집단

註) 출생순위와 성장지의 규모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은 가족은 내·외부환경과 세대간 주거분리에서 각각 요구가 높다. 그리고 40대는 세대간 주거분리에서,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은 가족은 개인실의 분리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은 세대간 주거분리에서 각각 그 요구가 높다.

따라서 중년층의 가족특성별로 동거주택에 대한 요구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4. 結 論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주택 중 그 비중이 크다고 사료되는 3대동거주택의 개발과 공급을 위하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특성과 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년층의 가족특성변수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中年層의 家族特性과 3代同居住宅에 대한 住要求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3대동거주택에 대한 住要求(14개) 중 代表的인 要求는 世代間 住居分離의 要求와 내·외부환경에 대한 요구이다. 각 요구에 대한 하위영역으로 세대간 주거분리의 요구에는 노부모실-부부실의 거리, 노부모와의 주택거리가, 내, 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에는 내부시설, 주변환경, 주택의 최소면적이 포함된다.

중년층의 가족특성이 이상의 3대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가족관계만족도, 사회경제적지위, 동거지향성, 자녀수 그리고 성별이다. 이에 비해 성장지의 규모와 출생순위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다. 즉, 동거주택에서 개인실의 분리요구, 내·외부 환경의 요구, 세대간 주거분리요구가 높은 집단은 가족관계만족도와 동거지향성이 낮고,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으며, 자녀수가 적고 여자인 경우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리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경제적지위의 안정, 가족관계의 원만함, 동거지향성의 高潮가 3대동거주택의 질적인 면에 대한 거주자의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3대동거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게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

리므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가정학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재확인 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족특성 변수들의 R^2 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으나, 이는 R^2 의 크기 자체보다는 주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을 선정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는 변수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년층의 가족특성이 동거주택에 대한 주요구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중소도시의 동거주택 개발시에 본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중년층가족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면 그 가족들의 住要求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역 거주자들의 요구에 근접한 同居住宅 計劃指針의 提示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중년층 가족들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핵가족이며 연령이 젊은층과 동거지향의 정도가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라면 그 지역에 개발할 동거주택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世代間 住居分離度가 높은 同居住宅을 개발하는 것이 주민의 호응이 높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건설부·주택공사, 3代家族型 共同住宅 開發研究, 1987.
- 2) 김태현·서승희,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7권, 1988:77-91.
- 3) 문숙재·차성란, "3세대 同居家庭의 主觀的 住居 過密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4호, 1988:67-85.
- 4) 박연수·신경주, "3대동거주택의 住居條件에 관한 청년층의 욕구" 한국노년학회지 제6권, 1986: 121-138.
- 5) 신경주, "中年의 住要求 측면에서 본 3代同居住宅의 조건 1", 대한건축학회지 제5권 5호, 1989: 71-84.6
- 6) 신경주·최정신, "3代同居型 아파트의 入住後 實態分析, -상계지역의 경우-",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3호, 1989:89-102.

- 7) 서병숙, 老後適應에 관한 研究,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交流度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8)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도서출판 나남, 1986.
- 9) 이해순, 중년층의 3대동거주택 조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0) 정은옥, 縮小期 家族을 위한 住居建築의 性能要求條件 設定,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1) 지순 외 4인, “노후의 가족관계와 노후생활주택에 대한 注意識 및 노후생활주택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1호, 1986:95-113.
- 12) 최정신, “老人住居에 관한 理論的 考察”, 聖心女大 論文集 제21집, 1989:267-322.
- 13) 홍두승,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1987.
- 14) 左左木ひろみ, “同居世帯, -この 住生活の 種種相”, 老人そ 生活空間, 高阪謙次 編 ミネルパァ書房, 1984:94-116.
- 15) 直井道子, “3世代 家族に なける 生活の 共同度と 分離度を 把握する ころみ”, 社會老年學 NO.19, 東京大學 老人總合研究所, 1984:32-42.
- 16) Golants, S., A Place to Grow Old:The Meaning of Environment in Old Age,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17) Goldscheider, C., “Differential Residential Mobility of the Older Popu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1, 1966:103-108.
- 18)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Estimates and Projections' as Assessed in 1982, Population Studies, No.86(New York;U.N. 1985).